

학교폭력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출석성지·학급교체·전학’ 처분 가해자... 대학 진학·취업에 영향 학생부에 모든 학폭 조치사항 ‘통합 기록’... 기록 삭제 기준 강화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화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고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이 대책은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

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성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집중·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으로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

학생부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고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다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엄벌주의’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상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지려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3호 조치는 기준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

하지만 학폭위 조치의 졸업 후 삭제 가능 기준은 더 까다롭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일보, 네이버·다음에 총선 뉴스 제공

‘국회의원선거 특집 페이지 파트너’ 전라권 언론사 참여

광주일보가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광주·전남지역 4·10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사를 제공한다.

카카오는 5일 광주일보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페이지 파트너’ 모집 결과를 발표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5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총선 특집 페이지에 참여할 지역 언론사를 모집했다. 광주일보는 ▲주요 기사 직능단체 및 지역언론 유관단체 등록 여부 ▲매체 소속 기자 수 ▲자체기사 비율 ▲지역 자체기사 비율 등 모든 평가 요소를 충족해 전라권 언론사로

참여한다.

다음 총선 특집 페이지는 선거 30일 전인 11일부터 총선일까지 운영된다. 광주일보의 기사는 페이지가 생성된 후 ‘지역 언론사 뉴스’란에서 볼 수 있다.

네이버도 선거 30일 전부터 총선 특집 페이지를 만들어 광주일보를 비롯한 110개 검색 제휴 지역 언론사 뉴스를 제공한다.

광주일보는 총선 특집 페이지를 통해 4·10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민심과 선거 판세 분석, 후보자 공약 등을 폭 넓게 알릴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순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도약

문체부 선정, 2027년까지 24억 규모 관련사업 추진

순천이 ‘2024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순천시를 선정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새로운 관광 문화가 형성되는데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한 여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순천은 전국 18개 지자체와의 경쟁을 뚫고 경기도 포천과 함께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난 2월 반려동물 친화 관광 콘텐츠를 기획한 해남·순천 등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지원해 왔다.

순천은 오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4억 원 규모의 관

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 순천에서 핏 뛰여 놀다’를 비전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을 활용한 체류형 펫 관광 콘텐츠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의 경우 광주·전남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조성된 상태다.

센터는 반려동물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한 입양홍보실, 반려견을 키우는데 발생하는 돌출·이상행동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반려인·이웃과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동교정실, 펫티켓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관광플랫폼에 반려동물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 포함시켜 순천시가 국내 대표적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르신들 건강한 여가활동을 응원합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문화 형성과 사회 참여 활동을 돕기 위한 ‘2024년 백세친구 백년동아리’ 개강식이 5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주 동구청 제공>

김영록 지사 “출생률 높이기·지역 발전 위한 최선의 노력 기울여야”

실국장 정책회의... 의사 집단행동 따른 비상진료체계 관리 철저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의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을 만들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전남도의 합계출산율이 세종시와 함께 0.9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철폐 및 완화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최근 각 부처의 주요 업무보

고를 잘 모니터링하고 도정과 연계해 업무에 활용하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구감소지역의 5만~30만㎡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사·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에 주말주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산림청은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사·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의 중앙부처가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문체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규제완화는 진일보한 것”이라며 “주말주택 역시 인구소멸시대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중소도시도 포함되도록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생명권을 담보로 투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는 사례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아직 도민들 진료에 지장이 없지만, 만에 하나 시간이 길어지면 의료공백이 올 수도 있으므로, 모든 실국이 당면사항이라 생각하고 비상진료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황사·미세먼지 예보 뜨면 “KF 보건용 마스크를”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불청객인 미세먼지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예보를 들었다면 팬데믹 이후 서랍 속에서 잠자던 KF 보건용 마스크를 꺼내 써야 한다.

5일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하려면 KF 보건용 마스크를 컷등과 마스크 코편, 얼굴과 마스크 전체를 밀착시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인 KF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로 된 유해 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

만, 숨 쉬기 불편할 수도 있어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입 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구매 시에는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등을 살펴보고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담은 동영상상 식약처 홈페이지와 편의점, 아파트 엘리베이터, 소셜미디어(SNS),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4 고소득 추천 목록

포포나무	제릭스 빅걸	선물리픽×생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선발된 최고 크기의 포포, 최대 과중 800g
	리만스 달라이트	프로리픽×생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육종된 품종, 달콤한 향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
	마리아스 조이	최대과중 631~704g, 년중 수확량 우수 유망 과수 학자가 지칭한 최고 맛있는 포포
사과	신품종부사 후지사과	인파기와 반사필름을 깔지 않아도 동서남북 색상이 잘나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신맛은 적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감	감풍, 원추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피 단감
	태추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슈퍼대봉	대봉중에 맛이 뛰어난 식재를 많이 합니다.
편두릅	민업나무 가지없는 편두릅	가지 없는 편두릅 나무가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지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사과, 신품종 후도,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4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루는 “갯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모둠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 드립니다.

갯을농원 모듬상담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허영을 화성로 25
 농림 703-02-497271(예금주 정준화)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7시
- 장 소: 심미문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문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갑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골담 및 수목심 수맥파 중화
- 음력, 양력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글합, 택일 등)
- 직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문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객실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대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제 23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잔액	제 23분기
자본	18,165,527,696	18,165,527,696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17,288,466,482	
2. 매출채권	789,972,204	
3. 미수수금	42,236,090	
4. 미수금	33,401,872	
5. 미수비용	32,552,048	
6. 선급비용		
7. 기타자산		
8. 기타자산		
9. 기타자산		
10. 기타자산		
11. 기타자산		
12. 기타자산		
13. 기타자산		
14. 기타자산		
15. 기타자산		
16. 기타자산		
17. 기타자산		
18. 기타자산		
19. 기타자산		
20. 기타자산		
21. 기타자산		
22. 기타자산		
23. 기타자산		
24. 기타자산		
25. 기타자산		
26. 기타자산		
27. 기타자산		
28. 기타자산		
29. 기타자산		
30. 기타자산		
31. 기타자산		
32. 기타자산		
33. 기타자산		
34. 기타자산		
35. 기타자산		
36. 기타자산		
37. 기타자산		
38. 기타자산		
39. 기타자산		
40. 기타자산		
41. 기타자산		
42. 기타자산		
43. 기타자산		
44. 기타자산		
45. 기타자산		
46. 기타자산		
47. 기타자산		
48. 기타자산		
49. 기타자산		
50. 기타자산		
51. 기타자산		
52. 기타자산		
53. 기타자산		
54. 기타자산		
55. 기타자산		
56. 기타자산		
57. 기타자산		
58. 기타자산		
59. 기타자산		
60. 기타자산		
61. 기타자산		
62. 기타자산		
63. 기타자산		
64. 기타자산		
65. 기타자산		
66. 기타자산		
67. 기타자산		
68. 기타자산		
69. 기타자산		
70. 기타자산		
71. 기타자산		
72. 기타자산		
73. 기타자산		
74. 기타자산		
75. 기타자산		
76. 기타자산		
77. 기타자산		
78. 기타자산		
79. 기타자산		
80. 기타자산		
81. 기타자산		
82. 기타자산		
83. 기타자산		
84. 기타자산		
85. 기타자산		
86. 기타자산		
87. 기타자산		
88. 기타자산		
89. 기타자산		
90. 기타자산		
91. 기타자산		
92. 기타자산		
93. 기타자산		
94. 기타자산		
95. 기타자산		
96. 기타자산		
97. 기타자산		
98. 기타자산		
99. 기타자산		
100. 기타자산		
101. 기타자산		
102. 기타자산		
103. 기타자산		
104. 기타자산		
105. 기타자산		
106. 기타자산		
107. 기타자산		
108. 기타자산		
109. 기타자산		
110. 기타자산		
111. 기타자산		
112. 기타자산		
113. 기타자산		
114. 기타자산		
115. 기타자산		
116. 기타자산		
117. 기타자산		
118. 기타자산		
119. 기타자산		
120. 기타자산		
121. 기타자산		
122. 기타자산		
123. 기타자산		
124. 기타자산		
125. 기타자산		
126. 기타자산		
127. 기타자산		
128. 기타자산		
129. 기타자산		
130. 기타자산		
131. 기타자산		
132. 기타자산		
133. 기타자산		
134. 기타자산		
135. 기타자산		
136. 기타자산		
137. 기타자산		
138. 기타자산		
139. 기타자산		
140. 기타자산		
141. 기타자산		
142. 기타자산		
143. 기타자산		
144. 기타자산		
145. 기타자산		
146. 기타자산		
147. 기타자산		
148. 기타자산		
149. 기타자산		
150. 기타자산		
151. 기타자산		
152. 기타자산		
153. 기타자산		
154. 기타자산		
155. 기타자산		
156. 기타자산		
157. 기타자산		
158. 기타자산		
159. 기타자산		
160. 기타자산		
161. 기타자산		
162. 기타자산		
163. 기타자산		
164. 기타자산		
165. 기타자산		
166. 기타자산		
167. 기타자산		
168. 기타자산		
169. 기타자산		
170. 기타자산		
171. 기타자산		
172. 기타자산		
173. 기타자산		
174. 기타자산		
175. 기타자산		
176. 기타자산		
177. 기타자산		
178. 기타자산		
179. 기타자산		
180. 기타자산		
181. 기타자산		
182. 기타자산		
183. 기타자산		
184. 기타자산		
185. 기타자산		
186. 기타자산		
187. 기타자산		
188. 기타자산		
189. 기타자산		
190. 기타자산		
191. 기타자산		
192. 기타자산		
193. 기타자산		
194. 기타자산		
195. 기타자산		
196. 기타자산		
197. 기타자산		
198. 기타자산		
199. 기타자산		
200. 기타자산		
201. 기타자산		
202. 기타자산		
203. 기타자산		
204. 기타자산		
205. 기타자산		
206. 기타자산		
207. 기타자산		
208. 기타자산		
209. 기타자산		
210. 기타자산		
211. 기타자산		
212. 기타자산		
213. 기타자산		
214. 기타자산		
215. 기타자산		
216. 기타자산		
217. 기타자산		
218. 기타자산		
219. 기타자산		
220. 기타자산		
221. 기타자산		
222. 기타자산		
223. 기타자산		
224. 기타자산		
225. 기타자산		
226. 기타자산		
227. 기타자산		
228. 기타자산		
229. 기타자산		
230. 기타자산		
231. 기타자산		
232. 기타자산		
233. 기타자산		
234. 기타자산		
235. 기타자산		
236. 기타자산		
237. 기타자산		
238. 기타자산		
239. 기타자산		
240. 기타자산		
241. 기타자산		
2		